

“숲속으로 영화소풍 떠나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서 19~21일 야외영화·공연·체험 등 진행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다.

산림청과 무주군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재)무주산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숲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주제의 야외영화 2편(9.19일 “어네스트와 쉘레스턴: 펠로디 소동” / 20일 “윙키”)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문화 체험, 신나는 숲속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산림문화 체험으로는 △그들만 놀아터&해먹, △열매 액자와 친환경 가방, △도마 만들기, △격정 인형 열쇠고리, △전연 해충 기피제, △휴대전화 거치대 만들기, △산림 문화 100선(산림청이 선정한 숲, 나무, 산, 들, 꽃, 풀 등



숲속으로 영화소풍 포스터

자연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100편), △달리는 책 놀이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책, 듣는 책 등),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모노레

일 체험 등이 마련된다.

19일 숲속 공연에서는 ‘뮤즈그레인’과 함께 “자연의 소리로 노래 만들기”를 해 볼 수 있으며 20일에는 ‘로로’의 “소리에 소리를 엮다”, ‘함서율’의 “더 해프닝소 마이드림(My Dream)”이 펼쳐진다.

임정희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장은 “자연특별시 무주에서만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영화소풍을 준비했다”라며 “오는 주말에는 무주에서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주는 건강한 안도와 다양한 영화, 공연, 체험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꼭 만끽해 보시길”고 전했다.

영화와 산림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숲속으로 영화소풍”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무주산골문화재단(063-245-6400)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1일 오후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방위적인 사전 안전 점검과 대응체계를 살폈다.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만전

최훈식 군수, 현장 점검·운영 준비 상황 살피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1일 오후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방위적인 사전 안전 점검과 대응체계를 살폈다.

이날 점검은 18일 축제 개막을 앞두고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축제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사과마당과 한우마당을 중심으로 축제장 전반을 둘러보고 운영 준비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최 군수는 사과마당과 한우마당, 무대, 체험장, 편의시설 등 주요 공간을 순회하며 안전관리, 동선 확보, 응급대응 체계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방문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공무원과 경찰,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지시했고 구조물 안전성과 접근성, 긴급 상황 시 비상 매뉴얼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중합건축사사무소이 엔지 최문규 사장이 중간 설계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사업’은 관내에 산재한 인·홍삼 판매장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진안홍삼의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진안JC 맞은편에 위치한 단지는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84㎡,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인·홍삼판매장 24개소를 비롯해 방문객 편의를 위한 푸드마켓, 카페, 전문음식점,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홍삼 판매장 입주수요, 시설 배치, 부대시설 구성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으며, 주민설명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물 25일까지 추석 파워세일 진행

진안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물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전 품목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든 고객에게 할인쿠폰이 발급되며, 쿠폰을 장바구니에서 선택하면 즉시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진안고원물은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진안군수 품질인증 홍삼제품과 사과 등 과일류도 같이 세일에 들어가 추석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불안정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2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6종에 대해 유종별 사용량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만 리터까지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받아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심사 후 농업인 개인별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반딧불 창작동요제 성황리 개최

12곡 창작동요 선보여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지난 13일 무주 반딧불 축제 특설무대에서 ‘2025년 반딧불 창작동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요제는 무주 어린이들이 직접 쓴 노랫말을 바탕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작곡된 작품 가운데 선정된 12곡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특히 무주 지역 학생들이 작사한 노랫말을 토대로 전국의 작곡가와 어린이가 창작팀이 참여해, 야외무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과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었다.

반디 대상은 조아유(무주초) 작사 ‘여름밤의 마법사’(김푸른 작곡, 푸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무주 반딧불 축제 특설무대에서 ‘2025년 반딧불 창작동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소리 중창단 가창), 반디 최우수상은 이주원(무주초) 작사 ‘태권 태권 태권도’(김드리 작곡, 늘해랑 중창단 가창), 최우수 노랫말상은 윤자빈(무주초) 작사 ‘반짝이는 무주의 밤’(이진희 작곡, 노래마을 아이들 노래), 최우수 가창상은 김승유(무주중앙초) 작사 ‘무주는 쉼less 가득해’(임수연 작

곡, 라인트리 프렌즈 가창)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강 교육장은 “아이들의 동심과 재능이 무주라는 무대에서 반짝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률 99.27% 달성

진안군은 15일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률이 99.27%를 기록하며 사실상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층, 장애인, 산간 오지 거주자 등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을 꼼꼼히 지원한 결과로,

전 군민이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마을 단위 현장 접수, 유선 안내,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발급 수단별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9,277건(40%) △지역사랑상

품권(모바일) 755건(4%) △선불카드 13,751건(56%)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금액은 52억 4,408만 원, 사용 금액은 42억 5,341만 원으로 사용률은 약 81.1%에 달한다.

진안군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